

보도 자료
2020년9월

손목 위에서 느끼는 삶의 활력



Junghans 신형 마스터 오토매틱 모델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. 이 시기는 세계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했던 전성기였습니다.

1950년대와 1960년대는 개발과 번영의 시대였습니다. 전후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경제가 발전하자 사람들은 다시 여행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. 이 기계식 손목시계는 새로운 삶의 질의 상징이며, 특별한 때에 선물하는 인기 있는 귀중품으로 여겨졌습니다.

Junghans 신형 마스터 오토매틱 모델은 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이곳에 그대로 전해줍니다. 모든 마스터 사양 라인이 그렇듯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가 이 모델에도 적용되었습니다. 1930년대에 개발되어 195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이 시계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.


JUNGHANS
GERMANY. SINCE 1861

신형 마스터 오토매틱에는 1950년대 디자인답게 뾰족한 스타일의 시계 바늘과 진한 색상의 중심선이 적용되었습니다. 간결한 다이얼에는 12시 방향에 더블 바 인덱스가 있으며, 송아지 가죽 스트랩에도 전통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. 상단 가죽의 아음부가 없는 섬세한 엠보싱 라인은 1950년대의 전형적인 디자인에 세련미를 더해줍니다. 케이스 뒷면의 투명한 부분을 통해 시계의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.



이 마스터 오토매틱은 시계의 전성기이자 새로운 삶의 시기인 1950년대의 역사적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추억이 깃든 시계입니다.

마스터 오토매틱 시양



027/4050.00



027/4051.00



027/7052.00

무브먼트:	최대 38시간 파워 리저브가 있는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J800.1, 날짜
케이스	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PVD 코팅 Ø 38.0mm, 높이 10.0mm, 굽힘 방지 코팅이 강화된 블록 고강도 플렉시유리, 5번 스크류된 마네탈 글라스 케이스 백
다이얼	매트 실버 도금, 광택 블랙 또는 광택 화이트 특수 코팅된 다이얼
시계 바늘:	분침 및 시침의 블랙 중심선
스트랩	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PVD 코팅 된 버클이 있는 송아지 가죽 스트랩
내수성	최대 3bar